

사명을 향한 40일 여정

The 40 Days' Journey towards Mission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_ 베드로전서 2:9

사명자대회 목적

우리가 교회공동체로 존재함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교회는 사명을 향한 40일 여정을 통해서 예수친구사역 1단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찾고 헌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겨자씨에서부터 사명을 찾아가고 각 겨자씨의 활성화를 통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에서 함께 사명을 이루어 가는 예수 중심의 성숙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사명자대회 목표

1. 주님의교회 전교인의 예수친구사역 1단계 훈련
2. 주님의교회 겨자씨의 활성화
3. 주님의교회 겨자씨의 사명공동체로서 변화

사명자대회 진행일정

2/15 (주일)	교구별 사명자대회 책자 받아가기, 함께 하는 사명자 대회와 우리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기
2/22 (주일)	예수친구사역 서약식 : 사명자대회 전교인 참여
2/23 (월) - 4/4 (토)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 사명자대회 전교인 새벽기도
2/24 (매주 화요일)	예수친구사역 1단계 리더훈련 : 사명자대회 겨자씨인도자 훈련
2/27 (매주 금요일)	예수친구사역 1단계 훈련 : 사명자대회 전교인 겨자씨모임
4/3 (금)	사순절 성금요예배 : 사명자대회 전교인 기도회
4/5 (주일)	부활절 예배드라마 : 사명자대회 결단식

사명자대회 함께 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 각 교구 겨자씨에 속한 겨자씨 가족들을 위해서 : 겨자씨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 각 교구 겨자씨 인도자들을 위해서 : 겨자씨가 사명공동체로 성장 하도록
- 향존직 직분자들을 위해서 : 우리 각자가 사명자로서 헌신하도록
- 박원호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사명을 이루도록

1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삶 “신앙 여정과 신앙의 성장과정” (에베소서 4:13, 잠언 16:9)

▲ 단편화된 삶

프랜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단편화”라고 합니다. 삶이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뜻인데,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부분은 성경적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세속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어느 한 조각만 기독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기독교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삶의 차이입니다. 삶과 동떨어진 바리새인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형식화되었고, 삶이 동반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 삶을 점검하는 신앙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당연히 ‘삶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앙과 삶이 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신앙으로 삶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 물질 문명에 빠져 가치와 목적의 상실

물질이 많아지면서 가치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표준이 바뀌었습니다. 도덕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신앙도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삶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평가할 때도 그 기준은 물질입니다. 사람의 가치

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는 과연 행복합니까?

하지만 과연 우리는 행복합니까? 이렇게 많은 물질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까? 영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각 나라의 행복 지수가 경제력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 6개국의 행복 지수는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물질의 풍부함을 얻었지만 그 대신, 얼마나 귀중한 것들을 많이 잃었습니까? 가족, 친척들과 친구들, 가장 소중한 신앙도 잃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특별한 일에서 만나는 분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일 속에서 만나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 -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그림의 이야기)

▲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물질입니다. 하지만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